

소설 쓰기.

한국역사학과 20180222 권준형

1학년 때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교양대학에 글말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글쓰기라는 것 자체에 왠지 모를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글쓰기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강의 중에 교수님이 글말 교실을 이용하면 이것 저것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준비하고 있는 글이 있어 글말 교실을 이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 가을에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 붙은 소설 공모전 전단지를 보고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을 써본 것은 몇 년 전에 들었던 소설창작 수업이 처음이었다. 학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다녀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글을 채웠다.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잘 써지지 않았고, 겨우 기준치에 해당하는 분량을 채울 수 있었다.

소설을 완성하고 글말 교실을 신청했다. 박필현 교수님이 소설을 읽어주셨는데, 30분 남짓한 가량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쓴 글에 교수님은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또 가까운 생각일 수 있는지 정신없이 이야기했다. 교수님은 소설을 완성한 것만으로도, 심지어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재미있게 쓴 것 같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글을 물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해서 글을 완성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교수님은 수고했다고 말씀해주셨다.

아쉽게도 상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교수님과 내 소설을 두고 이야기했던 시간 그리고 지나가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해주셨던 칭찬들이 내 마음에 남았다. 소설을 쓰고 글말 교실을 다녀와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달 남짓한 기간동안 하나의 소설을 완성하려고 했던 지난한 과정 자체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글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글을 쓰고 어떻게든 완성된 글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교수님이 읽어주시고, 누군가가 내 글을 봐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상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보다는 일단 '완성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일종의 도전 과제로써 충분히 값진 경험을 한 것이 아닐까.

꾸준히 하나씩 완성해가는 것. 글쓰기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2023. 12. 31